



광남일보



조간 제799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음력 11월 11일)

“대통령으로서 사죄”...국가에 책임을 묻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 업무

9시3분 추모 사이렌...희생자 179명 이름 부르자 ‘눈물’ 이 대통령 “유가족 일상회복 최우선...종합 지원 이행” “처벌 없는 현실, 끝나지 않는 비극”...진상 규명 촉구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 책임을 분명히 했다.

사건 발생 시각에 맞춰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고, 현장에서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다시 불리며 참사의 무게를 되새겼다. ▶관련기사 10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10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 앞서 사고가 발생한 오전 9시 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며, 일상의 시간은 잠시 멈췄다. 추모식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국회 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클래식 공연으로 시작해 묵념과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 순으로 치러졌다.

이어졌다.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단 등 40여명은 무대 앞 현화대에 국화를 올리며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마음에 새겼다.

“집으로 오는 길”을 주제로 한 추모 공연에서는 태극 방북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여정이 무대 위에 재현됐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한 명씩 호명될 때마다 탑승권이 객석 중앙에 놓였고, 숫자로만 남았던 사고가 다시 개별의 삶으로 돌아왔다. 이후 가수 이은미의 노래가 이어지며 추모식은 깊은 침묵 속에서 마무리됐다. 유가족들은 추모식 직후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과 작별의 시간을 별도로 가졌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1년 전 오늘, 사이렌을 끄고 돌아가는 앰블런스를 바라보며 ‘전원 사망’이라는 자막 아래 우리의 삶은 무너졌다”며 “책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 비극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서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추모식에 앞서 공개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향후 과제를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랑하는 가족과 해외여행을 마치고, 해외에서의 출장과 업무를 끝내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던 179분의 소중한 삶이 순식간에 비극으로 변했다”며 “그날의 그 큰 충격과 고통을 감히 누가 잊을 수 있겠나”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이제는 형식적 약속이나 공허한 말이 아닌 실질적 변화와 행동이 필요하다”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여객기 참사의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아 심리, 의료, 법률, 생계 분야까지 아

우르는 종합적 지원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지는, 작은 위험이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극 방북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7C2216편 보잉 737-800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중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쿠팡, 정보유출 보상 ‘1인당 5만원’

내달 15일부터 구매이용권 지급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한달여 만에 보상안을 내놨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약 3370만 명의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총 1조6850억원 규모로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쿠팡은 내년 1월 15일부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은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 2만원,

알렉스 상품 2만원 등 고객당 5만원 상당의 1회 사용이 가능한 4가지 구매 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해당 서비스들은 쿠팡이츠를 제외하고는 정기 구독 서비스인 와우 회원이나 일반 회원 모두 쿠팡앱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다.

탈퇴한 회원은 쿠팡에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는 “쿠팡의 모든 임직원은 최근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고객에게 얼마나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쳤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객을 위한 책임감 있는 조치를 취하는 차원에서 보상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정청래 “전남에 특별한 지원”...광주·전남 통합 필요성 언급

민주당, 무안서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호남민심 다지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무안에서 최고위원회회의를 열고 호남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에 대한 대규모 국비 투자와 국가 전략사업 추진 상황을 거론하며 “호남 발전은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2026년도 예산에 전남을 위

한 특별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며 “전남에는 글로벌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연구 시설, 국가 AI 컴퓨팅센터 등 국가적 핵심 인프라가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전남에 특별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호남 발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의 단계”라며 “전남이 사상 처음으로 국비 10조원 시대를 연 것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이 함께 만들어낸 성

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예산 확보는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집행과 성과까지 책임질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논의가 본격화된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통합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방 소멸과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의 통합 역시 중장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선 최고위원도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권역별 균형발전으로 가야 한다”며 통합 논의에 힘을 실었다.

지역 산업 현안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익 의원은 “철강·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통과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산업 고도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노동자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전남을 재생에 나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청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그는 “개혁과 민생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선거”라며 “내란 청산과 민생 개혁을 병행하는 양동 작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회원모집 안내

구분	분양금액	구좌	회원특전
VVIP (A형)	700	3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5회(비회원, 지정회원 위임시 70%할인) - 무기영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VVIP (B형)	700		- 회원업증, 무기영 1매, 골프텔 할인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 (1회 4인, 1팀 기준 /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VIP 정회원	500	1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2인 그린피 면제 -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50% 할인, 골프텔 할인 - 무료회차 20회 - 무기영카드 1매 / 년 120회 (월 10회 소멸형 / 1월 1회)
하트 정회원	320	10좌	- 정회원 1인, 지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영카드 1매 / 년 72회 (월 6회 소멸형 / 1월 1회)
해피 정회원	180	4좌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골프텔 할인 - 무기영카드 1매 / 년 36회 (월 3회 소멸형 / 1월 1회)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2026년 연단체모집

- 신청조건 1부 2팀, 2부 3팀 이상 · 레스토랑 중 · 석식 이용시 우선 배정
- 모집코스 격월(화, 대) 또는 대중제 선택
- 접수기간 2025.10.14.(화) ~ 모집 종료시 까지
- 할인혜택 월별 그린피 추가 할인 혜택
총무, 회장 2인 고정 할인 그린피 제공(3팀 이상 진행시)
레이디, 시니어 추가 할인
7,8월 연단체 진행시 특별 할인 혜택
연말 우수 연단체 선별하여 멤버 전원 혜택 제공
- 접수방법 연부랑 신청서 작성
(신청서: 해피니스CC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자료실)
· 이메일 접수: happinesscc@hanmail.net

· 골프호텔 객실



- 2인실 -

- VIP 4인실 -

- 별채 -

- 별채 -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예약전화 061) 330-5001~4